

지역대학 차별없엔 경쟁력, 지방분권의 결과물

지방분권, 선진현장을 가다

<4> 독일

살사는 지방도시 '하이델베르크' 대학 중심으로 시 정책 운영 지역 주민 화합 구심점 역할

지난 4일 기자가 찾은 독일의 지방도시 하이델베르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흘러넘쳤다. 1386년에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 '관광도시'로 인구 15만 명의 소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도시가 된 것은 지방분권의 역할이 컸다.

하이델베르크의 도시 정책들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이 최우선으로 설정된다. 하이델베르크 주민 가운데 학생이 3만 여명, 교수와 교직원 1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이니 모든 도시 정책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운영 주체이다. 물론 연방정부로부터도 약간의 지원은 받고



하이델베르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도시'가 돼 '관광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의 역할이 컸다. 하이델베르크 전경.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과 재정은 주정부가 책임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비롯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모든 대학은 2017년 가을학기부터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고 있다.

하이델베르크도 '대학과 학문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최근엔 유명 '관광 도시'로 거듭나면서 주민들은 새로 생긴 일자리와 소득증대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과 지역주민들은 시설과 자원을 거리낌없이 공유하고 있다.

△지방이 경쟁력, 지방 떠나는 일 없어 독일에선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기업이나 유명대학들이 수도권에 아닌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고, 각 지방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장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을 통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권 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니 이는 곧 정책의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잘 살고 소득수준도 높다. 수도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약점이 아니고 수도

권 집중 현상도 찾아보기 힘들다.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과거 경제력이 약했던 동독지역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철저한 연방제, 즉 지방분권에 따른 결과물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기초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홀거 조그 씨는 "지방에도 세계적인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굳이 베를린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의 주민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방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독일 글·사진=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제2의 측천 무후 위황후

위황후(韋皇后, ?~710)는 당 중종의 황후로 산시성 시안 출신이다. 중종이 즉위하자 친정 인사를 중용하다 유폐되었다. 측천이 퇴위하고 중종이 복위하자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남편을 독살했다. 그러나 후일 현종이 되는 이요기 세력에게 살해되었다.

그녀는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고종의 7남 이현의 후궁이 되었다. 정비 초씨가 시어머니 측천에게 마음 받아 처형되자 정비로 승격됐다. 683년 이현이 중종으로 즉위하자 친정아버지 위현정을 중8품 참군에서 정4품 예주자사로 승진시키고 제2품 문하시중으로 중용하였다. 측천은 재상 배엽, 중신 유위지 등과 공모해 중종을 54일만에

되였다. 장간지를 신주사마로 좌천시켰다. 환인범은 동궁으로 내려 살해했다. 경휘도 살해하고 원서기는 독약을 먹였으나 죽지 않아 매질을 해 죽였다. 무삼사는 오왕을 죽인 후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부르지는 모르겠다. 단지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곧 나쁜 사람일 뿐이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죽은 친정아버지 위현정을 상낙군왕으로 추존하고 무삼사 아들 무승훈에게 시집간 딸 안락공주와 함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안락공주를 황태녀로 삼으려는 위황후의 의도가 중종의 반대로 실패하자 그에 대한 반감이 깊어졌다. 황태자 이충준은 그녀의 소생이 아니었다. 안락공주와 무승

남편 독살 황위 탐했지만 정변서 피살

폐위하고 동생 이단을 황제로 옹립하니 예종이다. 후배이성 방주로 쫓겨난 중종 부부는 15년간 유폐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측천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정치력 덕분이었다. 배엽과 유언계 등 중신을 자신의 편으로 삼았다. 이씨 황실 가족을 우대해 유사시 황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황실 군대도 장악했다. 장군 정무정과 장간육을 각각 좌, 우 우림장으로 임명해 동도 낙양을 굳건히 지키도록 했다. 중종은 폐위당하는 수모를 피할 수 없었다.

698년 유폐생활을 끝내고 낙양으로 복귀했다. 699년 신왕조인 무주를 열고 황제가 된 측천은 말년에 접어들자 후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친정 조카인 무삼사 무승사는 태자 책봉을 위해 불붙을 안가렸다. 재상 적인걸이 여용왕으로 강등된 중종을 다시 불러 호위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숲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50만 유로인데 주정부로부터 20%(3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객실을 오픈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르뷔르켄 처럼 시민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도 있다.

/독일 자르뷔르켄 글·사진=박석호 기자

후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결국 707년 가을 정변을 일으켜 우림대장군 이다조 등과 함께 무삼사 부자를 죽였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싸움에 패해 측천에게 살해되었다. 710년 6월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중종을 궁궐에서 독살했다. 아들 이충무가 황태자가 되고 예종 이단이 상왕이 되었다. 위황후의 측근 종조객은 상소를 올려 "상왕과 위황후는 시종생과 형수 관계로 이들이 함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아 상왕이 정치를 보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충무가 즉위해 위황후는 황태후로 존송되었다.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은 위황후는 상왕과 태평공주가 눈에 가시였다. 그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병부시랑 최일음이 상왕의 아들 임치왕 이요기에게 알리고 조속한 거사를 권유하였다. 이요기는 신진 관료인 종소경, 태평공주 아들 설소간, 왕승염, 갈복순, 조정과 시종의 민심도 무시 집안의 승계에는 자극히 부정적이었다. 재차 황태자로 책봉되고 705년 측천이 장간지의 궁중 쿠데타로 퇴위하자 다시 황제가 되었다. 그녀는 딸 안락공주의 시아버지인 무삼사와 결탁해 본격적으로 궁중 정치에 개입했다. 그와는 불륜의 관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변의 주역인 장간지, 환인범, 최현위, 경휘, 원서기 등 소위 5왕의 힘이 약화

갈복순은 "위황후는 선제를 독살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했다. 상왕을 옹립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한다. 감히 두 마음을 품고 역당을 돕는 자는 그 죄 삼속에 미친다"고 선언했다. 위황후는 도망치다가 비기영 병사에게 목이 잘렸다. 나흘 후 상왕 이단이 양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방치된 숲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자르뷔르켄市 '글램핑 파크'

獨 참가형 예산 대표적 사례 6개 지구 잇단 회의 거쳐 결정 인터넷 투표 도입한 지자체도



시민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자르뷔르켄 글램핑 파크의 객실 모습.

독일의 시민예산은 참가형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경성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작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이다. 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주민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정치에도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산 계획작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주체적으로 예산의 설계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자르뷔르켄의 주도인 자르뷔르켄시가 2017년 만든 '글램핑 파크'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 도시에서는 한 해 사업에 대해 전년 3월부터 예산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한다. 7월에는 시민예산안을 위한 시민회의가 시내 6개 지구에서 개최된다. 이 때 시 담당자가 예산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2016년에는 12건의 시민예산안이 제안됐는데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공익성·효율성 검토를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글램핑 파크

다. 자르뷔르켄시의 북쪽에는 수백년 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큰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은 썰렁하게 방치됐다.

시민예산에서 제안된 글램핑 파크는 나무로 만들어진 32동의 친환경 숙박시설이다. 난방 시스템과 고급 침구류 등을 갖춰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숲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50만 유로인데 주정부로부터 20%(3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객실을 오픈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르뷔르켄 처럼 시민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도 있다.

/독일 자르뷔르켄 글·사진=박석호 기자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우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